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

양 재 한**

<목 차>

- | | |
|--|---|
| <p>I. 글을 시작하면서</p> <p>II.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 도서관에 대한 인식</p> <p>III.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단계</p> <p>1. 대학도서관</p> <p>2. 공공도서관</p> | <p>IV. 미래의 도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p> <p>1. 미래의 도서와 도서관</p> <p>2. 사서의 역할</p> <p>V. 글을 마치면서</p> <p>참고문헌</p> <p>Abstract</p> |
|--|---|

I. 글을 시작하면서

몇 주전 사서생활을 시작한지 1년 수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는 졸업생 3명이 찾아왔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업체 자료실에 근무하고, 2명은 대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초년병들이다. 대화내용 중에서 기업체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이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니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2명의 졸업생도 함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자료구입 결재를 받을 때마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직장상사의 얘기는 미래에는 인쇄로된 자료는 없어질텐데 지금 이런류의 자료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개설된 '문헌정보학사연구'의 학기논고로 제출된 글임.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입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 다그치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다는 답변도 저렇다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의 분위기도 문헌정보학을 수 년씩이나 교육을 받은 사서들조차도 미래도서관은 장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이들 사서 초년병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심광처럼 떠오르는 글이 있어 다음 부분을 찾아 읽어 주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의 문헌정보학 연구자 가운데는 의외로 환상을 좇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그들은 종교적 몽상가들의 행태와도 같이 한편 눈 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한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집착한다. 그 집착에는 광기의 요소도 있는 듯하다. 서양의 저자들 가운데도 아류들은 흑세무민하는 축이 많다. 그들은, 데마고그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의 연구자들 가운데 데마고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 땅의 장서개발 문제가 오우너쉽이 축이 되며 액세스가 보조적 위치에 서는 구조속에서 해법을 맞이할 수 있 기를 기대 한다.¹⁾

기술을 맹신하는 미래주의자들은 미래도서관은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책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으로 변모하여 기존의 건물과 장서중심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의 어느 기관보다 척박한 도서관 환경,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수,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 조악한 대학도서관 장서의 양과 질, 그리고 혼란된 전문사서의 열세 등 많은 악조건 속에 있다.

이러한 난제들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연결한 도서관 전산화만 완성되면 일시에 해결될 것인가. 미래에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므로 단위도서관의 장서는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1) 김정근,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23집(1995. 겨울호), p. 325.

미래에 대하여 이러한 환상속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문외한들 뿐만 아니라 사서들조차도 많음은 어디에서 유추한 탓일까? 이는 정부, 언론, 컴퓨터업계, 전산전문가 등의 영향 뿐만아니라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며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다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행태에서도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도서관이 발전하려면 충실한 장서, 장서를 소장하거나 이용할 적절한 시설, 이들을 관리할 잘 훈련된 인력, 이들을 이용할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이 요소들 중에서 우리 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사서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도서관 인적자원은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사서들의 의식세계는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서구지향적인 자세로 인하여 우리 도서관의 현단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피상성에 사로잡혀 혼란속을 헤매고 있다.

최성진은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학문이므로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여야 하며, 한국의 도서관 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은 '지적 기반'의 부족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지적기반을 제공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²⁾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미래도서관에 대한 지적기반은 어디에서 전수되었을까? 많은 부분은 문헌정보학을 강의하는 강단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미래도서관에 대한 문헌정보학 강단의 담론은 미래도서관을 설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기본자료와 이에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논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5. pp. 7-13.

II.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

미래도서관에 대한 설명으로는 인쇄매체의 종말이 온다는 것에서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건물로서의 도서관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더 이상 단위도서관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역간, 국가간, 범세계적 도서관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the wall), 사이버도서관(cyber library)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³⁾

이런류의 미래도서관이 현실화되면 지금과 같은 도서관 장서, 직원, 건물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담론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 입문 교과서 2종, 국내 번역되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번역서 1종,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논문, 그리고 최근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로 한다.⁴⁾

3)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전국사서협회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1995. 12. p. 6.

4)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이들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이 분야의 입문과정에 있는 교과서류일 것이다. 입문과정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리라고 생각되는 교과서류 2종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고,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국내번역되어 인용되어지는 빈도가 높은 번역서 1종,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최근 발표한 미래도서관 관련 글들과 최근 경남지역공공도서관세미나에서 주제강연한 글들에서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인용되는 자료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입문 교과서 중의 하나인 단행본에서는 F. W. Lancaster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도서관은 그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인 기능성은 마이크로폼 축적과 컴퓨터응용과 같은 기술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점증하는 다양한 자료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촉진되는 네트워크 활동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유용성과 비용-효과를 개선하게 될 것이며, 방대한 국가적 도서관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서관은 종이에 인쇄된 자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축출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계가독형 자료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의 직접방문의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도서관들은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정보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도서관들은 온라인 지적공동체가 될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개별도서관에 본문 또는 기타 형식으로 된 정보자료는 물론 접근을 허용하게 되므로,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간의 차이점은 불분명해질 것이다.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출현으로 데이터뱅크로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해답을 제공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감소시킬 수 있다(단행본 A, pp. 91-92).

요약해 보면, 미래에는 자료처리과정이 자동화되고, 종이로 인쇄된 자료와 지역단위 도서관은 사라질 지도 모르며, 전자식 접근방법으로 전환되고, 도서관서비스가 도서관을 우회하여 가정으로 배달되고, 온라인 지적공동체는 새로운 시설로 변환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행본에서는 미래도서관의 사서의 역할도 F. W. Lancaster의 이론에 따라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갖는 가치는 저하되지만 그 반면에 사서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때의 사서는 도서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사서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시설에서 해방된 정보전문가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사서들은 도서관이 인쇄매체로부터 전자사회로 자연스럽게 변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은 서비스의 기능이 거의 없고 창고와 배달기능을 제공하는 박물관, 기록보존소, 과거기록의 보관소가 될 것이다.

숙련된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사서들은 보다 오랫동안 살아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사서들의 미래는 그들의 능력이 전통적 도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단행본 A, p. 99)

이에 비하여 또다른 입문 교과서에서는 미래사회에 종이로 출판한 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도서를 구입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주로 일반 개인이 사는 도서, 전문직 및 사업분야에서 사는 도서, 교육분야에서 사는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 사는 도서는 일반대중용 도서로 경제적인 문제, 휴대의 편리성,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향후 종이 형태로 오래도록 이용될 것이며, 전문직이나 사업분야에서 이용하는 도서는 주로 참고용 독서자료 이므로 연구자들이 문헌의 형태보다는 정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용이 편리할 것이고, 이에 비하여 교육분야에 필요한 교과서류는 인쇄형태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어 질 것이다.(단행본 B, pp. 517-520)

미래도서관에 대해서도 위의 입문 교과서에서는 F. W. Lancaster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사회는 전자문헌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쇄자료가 줄어들고, 사무실과 가정에 터미널이 보급되고, 연구자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며, 시설로서 도서관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나 산업체 부설도서관의 기능 가운데 일부는 전자식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학생들의 과제처리, 인기작가의 소설, 설제도면,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거나 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전자식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시설로서 도서관이 존재하며 전자식 기술은 현재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터미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더라도 도서관의 필요가 사라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단행본 B, pp. 520-536)

우리 나라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번역서로는 Kenneth E. Dowlin이 쓴 'The Electronic Library'가 국내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있다. 이 번역서에서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책을 두는 장소이며, 사서는 책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사서에게는 책과의 연결 혹은 책과의 관계가 하나의 자산이었다. 책이 갖는 낭만적인 분위기 덕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축적과 전달 수단이 책 이외에도 개발됨에 따라, 우리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회에 내보일 근거가 약하게 되고 책과의 관계라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점이 되었다. 다른 미디어의 이용증대와 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며, ... 전자시대에서는 정보에 대한 조직화된 액세스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된다... 만약 책이 정보의 입수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동일 목적을 위한 다른 수단들도 검토하고, 이들 수단을 조직화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역할은 정보의 액세스를 늘리는 일이다.(번역서 A, pp. xi-xiii)

Dowlin은 미래도서관의 사서의 역할은 정보의 액세스가 주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장서소장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간행된 최근 논문 중에서 미래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21세기 대학도서관은 인쇄매체로 된 자료가 한 권이 없어도, 오늘날의 대학도서관과 같은 거대한 건물과 공간이 없어도 학술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논문 A, pp. 4-5)

첫째,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이용자가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셋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적으로 말해 현재 종래의 도서관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다다랐고 그 새로운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다.(논문 B, p. 115)

금번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글들 중에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이 인쇄물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은 확실히 편한 길임에 틀림없으며, 중단 기적으로 볼 때 전통적 도서관 형태와 더불어 그럭저럭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도서관이 확장된 의미에서의 책, 즉 다양한 지식의 집적형태를 준비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책의 보관소로 머문다면 이는 '집적된 지식의 집합체'로서의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는 감소할 것이다.(논문 C, p. 27)

인쇄매체는 점차 디지털형태의 뉴미디어로 대체되고 있다. 즉 정보는 이제 디지털형태로 만들어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형태의 데이터는 인쇄물을 생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점차 CD-ROM, 비디오디스크, 그리고 자기테이프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인쇄매체가 오늘날의 도서관을 탄생시켰듯이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미래의 도서관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종이 없는 사회에서 도서관 대부분의 업무는 전산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종이는 여전히 편의를 위해 최종적인 출력물로서 사용될 것이다.(논문 D, p 68-69)

책의 영원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책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카메라가 발명된 후 회화 (painting)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면서 도서관의 전자화는 전통적 도서관을 보완(reinforcement)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논문 E, p. 135)

한편 공공도서관 경남지구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에서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는 기존의 도서관이 아닌 주로 정보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많은 정보생산자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한 채 바로 이용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와 과정을 보면 그것이 곧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정보통신이 완전히 보급되는 순간 도서관의 기능과 개념은 존재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건 사실이다)(세미나 자료, p. 9)

지금까지 살펴본 글들에서 입문교과서 한종과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한편의 글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자들의 미래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책의 시대는 끝이 나고 기존의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 형태로 대체되어

장서의 소장 개념은 사라지고 접근의 개념만 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계의 연구 분위기에 대하여 김태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학문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려는 학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목표에 달성하려는 노력과 방법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영역에 의 편중과 학문적 본질의 일탈이다. 근래 우리 학문분야에서 만연하는 맹목적인 정보학 선호현상과 타학문의 기능주의적 현상을 우리학문의 본질인양 착각하는 풍조가 문제다.⁵⁾

김태승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맹목적인 정보학 선호현상을 우려하면서, 소위 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타학문의 기능주의적 현상을 끌어들이어 문헌정보학의 본질인양 말하는 풍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 볼 때 앞에서 지적한 자료들은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과연,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미래도서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를 바르게 이해하면 미래도서관에 대해서 올바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도서관은 소장과 접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장과 접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단계 부터 알아 보자.

5) 김태승,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제34권 제5호(1993, 9. 10), p. 2.

Ⅲ.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단계

1. 대학도서관

금년 3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동일 교수가 공개구직을 선언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조동일 교수는 공개구직을 선언하면서 연간도서 구입비 1천만원, 1만여 권의 개인장서를 보관하기 위한 30평 정도의 연구실, 1주일에 90분 짜리 공개강의 두 번만을 할 수 있도록 단과대나 학과, 연구소 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교수로 발령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조교수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자료로는 연구에 필요한 장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교수 자신이 연간 5백만원 정도를 책 구입하는데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이 충실해지기를 기다려 연구를 하려면 조교수 평생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⁶⁾

서울대학교가 어떤 대학인가. 외형적으로 한국 최대 최고의 대학에다 도서관장서수에 있어서도 170만 권이 넘지 않는가. 이 170만 권의 의미는 연구에 부적합한 집서란 말인가. 연구에 부족한 도서는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는 없었던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안다면 170만 권의 장서수의 의미를 알 것이며, 서구에서 일반화된 상호대차 제도가 우리의 허약한 실물장서 상황에서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분석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김정근은 그의 책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의 현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89년 말 현재 장서 52만 권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서 52만 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의미를 똑똑히 델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런 식의 장서라면 52만 권이면 무엇이더 또 152만 권이면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대학도서관의

6) 문화일보, 1996. 3. 29(금요일), p. 20.

서가인가? 이곳은 폐품수집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는 무명의 저자, 편자, 역자, 무명의 작가, 시인, 수필가가 이처럼 판을 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그들은 많은 경우 다섯권, 열권 또는 수십권씩의 복본의 형태로 서가를 점유하고 있는가? 왜 연속간행물 수집은 또한 이러한가? 왜 이처럼 결과가 투성이로 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사람들은 이 대학의 장서로는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공산권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제3세계 연구도 어렵다고 하는가? 노동연구, 여성연구도 곤란하다고 하는가? 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 연구조차 어렵다고 하는가?⁷⁾

우리 나라 최대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소장과 접근의 우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에 전자도서관이 되든 디지털도서관이 되든 주고 받을만한 자관 자료 확보가 선행 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는 충실한 실물장서 구축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분야는 1980~90년대에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부분이 더러 있다. 도서관 숫자의 증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 도서관행정 담당부서의 문화체육부 이관과 담당부서 설치, 도서관업무의 전산화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동일한 문제로 30년 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주의·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주고객은 학생과 가정주부들이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부들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수강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도서관 본래의 역할이 아니지

7)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p. 77.

않는가.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켜주는 데 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을까. 이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의 문제, 행정적 관장의 문제, 사서들 자신의 문제 등이 있겠지만 자료의 문제가 가장 큰 기본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단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이 지역사회의 이용자와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 개발의 기초단계가 아니라, '사주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구입에 대한 결정은 전문사서로서 번에 의해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규정받은 사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직 관리자의 한마디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의 서가는 개발된 장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봐주고, 사주고, 얻어오고 해서 채워진 잡동사니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⁸⁾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장서구성을 보면 그나마 적은 장서 중에서 대부분 70~80%가 전집이 라는데 더욱더 문제가 있다. 완전히 전집시장을 방불케 한다. 심지어 똑같은 전집이 몇 질씩이나 되는 도서관이 허다하다. 실제 이용자들의 입에서도 도서관에 가도 볼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⁹⁾

백두시의 4개 공공도서관의 장서수준은 양의 부족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기 중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질적 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관구입비의 부족으로 자료기준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장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개관을 연기하는 공공도서관도 있었다. 이제는 한가로이 흥미위주의 인위적인 베스트셀러 물 몇권 읽는 것으로 독서량과 문화수준을 동일하게 측정하던 시대는 지났다.¹⁰⁾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집과정에는 수서정책의 부재에 따른 자료선정과 구입의 무질서가 있었고, 사서들의 장서에 대한 방관도 있었고, 구입과정에 있어 전문사서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의압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공도서관의 영세한 자료

8) 김정근, 장덕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27집(1994), p. 32.

9)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1): 공공도서관, (서울: 신문학사, 1991), p. 39.

10) 김순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의 현단계: 백두시 4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p. 67, 74.

구입비도 자료수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¹¹⁾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사주기에 의한 무의도적인 장서개발에 따른 전집류의 과다보유, 도서구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기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베스트 셀러 위주의 장서구성, 비전문직 자들의 장서 구성에의 개입 등으로 총체적 난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의 현단계가 이러하다면 현단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곧바로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 진입하자는 것인가. 책을 읽는 습관이 종이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자료를 전자화해서 읽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서양문헌에 나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종이매체는 지식습득을 위한 지속적 독서를 위해서는 최상의 수단이다... 컴퓨터는 데이터나 적은 팻킷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아직 독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두 세 페러그라프 이상 되는 길이의 텍스트를 읽는 데는 종이 매체가 단연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¹²⁾

IV. 미래의 도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1. 미래의 도서와 도서관

오늘날 도서관자료의 대부분은 인쇄매체 중심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11) 박인용, 김정근, 이연옥,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구입의 현단계", 도서관, 제50권 제3호(1995. 가을호), p. 28.

12)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ALA, 1995), pp. 13-18.

인쇄매체들은 보존을 위하여 서고공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와 재생산의 어려움, 배포비용의 문제, 갱신(update)의 어려움,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데 어려운 문제, 쉽게 손상되는 문제, 운반의 어려움, 자료 성격이 동적이지 못하고 정적인 문제, 음성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동화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독자의 움직임에 관찰할 수 없는 문제, 독자의 이해정도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문제¹³⁾ 등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전자매체인 자기디스크나 광 디스크와 같은 매체로 기록물을 대체하는 현상과 아울러 컴퓨터와 통신망을 결합한 전자도서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전되어 기술이 발전된다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인쇄매체는 사라질 것인가. 전자매체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 미래학자들 중에는 인쇄매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측도 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정보자료의 원문이 CD-ROM이나 광디스크와 같은 뉴미디어에 수록되면 기존의 인쇄매체보다는 원문 제공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원문은 절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문은 대출하지 않으므로 항상 가독할 수 있고, 원문 전부를 요청하기 전에 훑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쇄매체는 전자매체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게 변화할까. 인류는 인쇄매체로 독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인쇄매체는 가지고 다니기 쉬운 반면에 전자매체는 휴대가 불편하고, 인류가 지닌 고도의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인쇄매체보다 우수한 기록매체를 인류는 아직 개발한 적이 없다.¹⁴⁾

미래에 인쇄매체가 사라질 것이라면,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우리보다

13) Philip G. Baker, 안현수 역, "전자책과 미래의 도서관", 도서관, 제48권 제3호(1993, 5. 6), p. 19.

14) Crawford and Gorman, op. cit., p. 16.

앞선 미국에서 도서, 잡지, 신문 등에 대한 출판량, 판매량, 도서관의 대출량 등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Crawford와 Gorman은 오히려 이들의 수치는 증가되고 있어 인쇄매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서관매량이 1991년보다 1992년의 9달 동안 약 16%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성장률이다.

아동과 청소년 도서시장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1991년 4월과 1992년 3월 사이에 8억2천2백만 권의 성인도서가 팔렸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이며, 모든 미국 가정의 2/3가 한권의 책을 구입한 수치이다.

전체 인쇄/출판 산업은 미국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다.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잡지와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출판은 530억 달러 이상이다. 잡지와 신문의 대부분의 수입은 구독료보다는 광고로부터 나온다.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률이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1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¹⁵⁾

인쇄매체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예는 전자매체로 독서하는 데는 빛(light), 해상도(resolution), 독서속도(speed of reading)의 문제가 있다. 전자매체로 독서하면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눈이 쉽게 피로하여 장시간 독서할 수가 없게 되며, 빛과 해상도의 문제, 한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 양이 인쇄매체의 1/2에서 1/3정도만 볼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독서속도가 인쇄매체에 비하여 떨어진다.

또 하나의 예는 경제적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참고업무와 관련된 색인과 초록류, 짧은 논문과 소실류는 전자매체쪽이 비용이 절약된다.¹⁶⁾

따라서 모든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변환되기 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참고업무와 관련된 색인과 초록류 등 서지도구와 짧은 논문과 소실류 등을 제외하고는 인쇄매체가 계속 유효하게 사용될 것이다.

15) Loc. cit.

16) Ibid., pp. 19-34.

다음은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래의 도서관은 컴퓨터와 통신망 연결에 의한 전자도서관만 존재할 것인가. 인쇄매체 중심인 현재의 장서들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은 ‘한때 도서관의 서가에는 책들이 꽂혀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는 우리보다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빠른 미국의 도서관 장서개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에서 간행한 ‘ARL Statistics : 1994~95’에서 매년 평가하는 대학도서관 순위결정 항목으로는 장서수, 정기간행물수, 연간증가자료량, 자료구입예산,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서관련 통계가 일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 대학도서관의 장서수는 하버드대학 1,300여만권, 예일대학 950여만권, 일리노이 대학 860여만권이고, 이들 대학의 한해 동안 장서 증가량은 각각 27만여권, 13만여권, 20만여권으로 여전히 종이로 된 자료 확충에 혈안이 되어 있다.¹⁷⁾

이와함께 위 통계에서는 대학도서관들이 온라인 목록과 CD-ROM과 같은 매체를 갖추게되어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도서구입 가격과 잡지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용자유구에 맞는 자료확보가 과거 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대차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1986년보다 1995년말에는 상호대차 이용율이 104%나 증가되고 있다.¹⁸⁾

위의 예에서 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장서를 확보하고 있고, 전자매체를 통한 접근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요구 만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어, 소장중심으로한 접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이 앞서 있는 미국의 상황이 이러하고, 우리나라

17)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The Association, 1996), pp. 55-72.

18) Ibid. , pp. 9-13.

장서개발의 현단계를 안다면 소장과 접근의 우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의 한 연구자는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된 소위 전자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도서관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종이로 된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변한다는 것뿐이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미래의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 '지식기관' 또는 '지식제공기관'으로 이용자 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을 바라본 것이다. 한편, 도서관 운영자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이 될 것이다.(논문 F, pp. 71-72)

위와 같이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은 도서관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사실 전자매체도 다양한 자료의 일종이며 도서관 봉사를 다양화하는데 가능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도서관은 접근의 기능 외에도 학습의 장소, 지식, 문헌, 오락등 모든 종류의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여야 할까. 소장과 접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접근에 의한 정보이용은 소수 계층에서 이용할 것이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인쇄매체로 된 책을 계속 읽을 것이다.

모르티머 에들러(Mortimer Adler)는 '마음의 네가지 자산'으로 정보, 지식, 이해, 지혜를 들고 있다. 그는 이 네가지 가운데 정보는 값이 가장 떨어지며 지혜쪽으로 갈수록 보다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보는 전자기술을 이용한 처리나 전달에 알맞고, 지식은 의미로 바뀐 정보라고 한다. 그것은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한 전달에 있어 바람직한 매체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 이해는 어떤 세계관과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지식을 말하며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혜는 이해가 완전하게 생산적으로 된 상태를 말하며 역시 인간정신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한다.¹⁹⁾

이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정보의 홍수 속을 멋있게 수영은 할 수 있어도 지식, 이해, 지혜를 구하는데는 부적절한 매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쇄매체의 몫이며, 이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의 몫이다. 우리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인 기록류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인류가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고 봉사하는 시설이 미래의 도서관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사서의 역할

사서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 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²⁰⁾

미래사회의 사서는 현재 사서들이 수행하고 있는 문헌의 수집, 정리, 보존, 대출과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이들 업무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서적 자체가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최석두²¹⁾, 김성혁²²⁾, 서은경²³⁾, 구분영²⁴⁾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19) Mortimer Adler, A Guide to learning. (New York, 1986), pp. 110-134,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Ibid, p. 4에서 재인용.

20)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184.

21)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제34권 5호(1993, 9. 10), pp. 29-35.

22) 김성혁, 앞의 글, pp. 70-85.

23) 서은경,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32권 4호(1995, 6), pp. 5-16.

24) 구분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1996, 6), pp. 3-50.

소장 중심의 도서관들이 접근 중심의 전자도서관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사서들의 역할도 정보전문가 내지는 정보공학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김태승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문화 현장인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사회속의 조직체이다. 인간의 모든 행태가 수학적,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우리 학문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본질이 아니다. 정보학이 정보의 속성, 정보의 유통, 정보처리, 정보의 서비스를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전문가시스템이나 추론엔진과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능주의 방법이 모든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달아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최근 숭미주의적 학문도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신실증주의에 지배당하는 수난은 더이상 사양한다. 문헌정보학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인 한은!²⁵⁾

앞의 글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사서의 역할을 정보전문가 혹은 정보공학자로 바꾸려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첫째, 사서들의 일이 접근을 통한 정보제공 업무 외에도 많은 다른 업무가 도서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 화이트 칼라 계층은 대부분 정보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²⁶⁾

그렇다고 오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미래의 사서는 접근의 문제를 무시한 채 실물장서만 고집해서도 아니된다. 미래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특정한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하여 접근에 의해 지원하는 소장과 접근이 균형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서의 역할이 미래에도 이용자와 자료를 중재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미래주의자들은 미래에는 이용자가 터미널을 통하여 자료에 직접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이므로, 이용자와 자료를 중재해 주는 사서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말은 전

25) 김태승, 앞의 글, p. 2.

26) Crawford and Gorman, op. cit., pp. 105-106.

문교육을 받은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를 동일시하는 주장으로, 사서의 역할을 평가절하 하는 사고이다.

아마 사서의 도움없이 접근이 가능한 이용자는 소수 계층일 것이며, 보통의 이용자들은 사서의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기술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산업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오히려 사서의 역할은 증대되어 더욱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V. 소장과 접근의 문제

인류가 살아온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세대이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다. 수세대 전 인류가 많이 사용하였던 문명의 이기 중에서 그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예를 생활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 중에서, 전화와 편지 쓰기를 살펴보자. 전화가 나타나기 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지 쓰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편지 쓰기는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고 부터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여행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자. 비행기라는 수송수단이 일반화 되면서부터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컴퓨터와 통신망의 결합으로 생겨난 전자도서관이 기존의 소장 중심의 도서관들을 대체하는 것에도 나타날 것인가.

미래사회에 완벽한 통신망을 갖춘 전자도서관이 나타나면 지금의 사서와 책들은 사라지고 지식만 관리하는 전자도서관만 살아남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Clifford Lynch는 그의 글 'Networks, Open access, and Virtual libraries :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library'에서 1996년도 미래도서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할 것이다. 워크 스테이션은 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이들 자원 가운데 필요한 것을 추려 내고,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고, 새로 쓸 수 있게 된 정보를 기억하여 생성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 도서관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²⁷⁾

과연, 수많은 워크스테이션과 통신망만 있으면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을 때 이 사이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인터넷'이란 것이 나타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즉, 컴퓨터에다 인터넷만 연결시키면 모든 찾고자 하는 정보가 해결될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정보의 유통 부문에만 집착, 정작 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D/B) 개발이나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는 턱없이 미흡하다. ... 정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 - 유통 - 평가 - 생산이라는 순환도를 그린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보의 유통에만 집중된 기형 적 구조이다. ... 정부가 2015년까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45조원을 투입하면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²⁸⁾

더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에게 인터넷을'이라는 운동이 지닌 문제점이다. 우선 인터넷에 무수히 깔려 있고,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의 유틀물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이트들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의 사이트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미국문화가 '생짜'로 제공될 경우,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의 교육에 끼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 CATV, 위성방송 등의 등장으로 더욱치열 해지고 있는 뉴미디어 전쟁속에 신문사들이 설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27) Clifford Stoll, 한경훈 역, 허풍떠는 인터넷, (서울: 세종서적, 1996), p.250에서 재인용.

28)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저품' 지나치다", NEWS+, 제33호(1996. 5. 9), pp. 27-28.

미디어를 통해 생사를 결 수밖에 없다.²⁹⁾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할일 없이 들어간 PC통신망, 인터넷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다. 사람들은 정리된 도서관, 훈련된 사서를 마다하고 잡동사니 정보로 가득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멋있게 헤매려 한다. 나는 학생들이 인터넷의 걸멋에만 들떠 정작 대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교양인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근심스럽다. 긴 호흡의 책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삼십 여줄 안팎인 짧은글(주로 통신망에 서 글쓰기 문화)에만 맛을 들이는 것은 대학생 최악의 모습이다.³⁰⁾

위의 세가지 예는 정보화의 거품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글들이다. 처음의 글은 정보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이 되어야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모습은 정보 생산의 문제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유통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음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 오랫동안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오직 접근에만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기형적인 모습에 우려를 표시하는 말이다.

두 번째 글은 신문사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뒤에는 상업성의 음모도 감추어져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쉬락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의 창의력을 북돋우고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 놀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 추방을 선언했다고 한다.³¹⁾ 세 번째 글은 우리의 대학생들이 제대로 쓰고, 읽는 훈련을 위해서는 접근의 방식보다는 실물장서를 이용하는 기초부터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 나라의 현단계에서는 소수의 목소리이다. 세

29) "대학정론—우려되는 정보화 거품", 교수신문, 1996. 6. 17.

30) 조환규, "콜리포르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책과의 대화" 부대신문, 1996. 6. 10. p. 5.

31) "대학정론—우려되는 정보화 거품", 앞의 글.

제화, 정보화라는 대세에 밀려 지금의 소장중심의 도서관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여과없이 쏟아 붓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살펴보자.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완료된다고 한다. 이 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1994~97)기간에는 공공기관, 대형 빌딩, 교육연구단지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2단계(1998~2002)에는 중소기업 및 아파트단지 등에도 광케이블을 포설하며, 3단계(2003~2015)에는 일반 가입자까지 광케이블로 포설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정보 송수신시대가 개막된다는 계획이다. 이때에는 재택근무, 원격진료, 영상쇼핑, TV학습, 영상회의 등도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한다.³²⁾

이와 발을 맞춰 정부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14개 분과위원회 중의 하나인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성안하여 내어놓은 계획안에는 민간 교육정보화 운동 적극지원,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EDUNET구축,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한 골자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안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설립될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에 EDUNET에 관한 기능을 부가하고 1단계인 시범서비스를 1996년부터 실시해 오는 2000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EDUNET운영외에, 각종 멀티미디어 S/W개발, 공모, 지원, 보급, 전자도서관 역할 수행, 신대학 등 원격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EDUNET는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소비자를 서비스대상으로 학습정보, 학교생활지도, 학교안내 D/B 등 각종 교육D/B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원격교육 지원, 평생교육원, 사이버서비스(EBS, 박물관, 도서관 등)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³³⁾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금년 7월 2일 교육부의 새직제를 의결하였다. 새직제 중에는 교육정보관리국을 신설하여 그 산하에 교육정보기획과, 교육매체설비과, 정보자료담당관, 행정전산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직제개편의 목

32) 안현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Digital Library", Digital Library와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향상. 1995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1995. pp. 26-33.

33) "열린학습사회, 2000년에 완성", 한국교육신문. 1996. 4. 17. p. 3.

적 중에는 '정보관리 기능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편을 단행하였다고 한다.³⁴⁾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학습사회에 대한 계획이나 교육부내의 새 직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변화하는 사회에 교육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위의 계획들이 얼마나 건너뛰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습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EDUNET이 완성되면 해결될 것처럼 피상성에 젖어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곧바로 전자도서관 형태로 바뀌 종이매체를 대체한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발상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싶다.

과연, 미래에는 종이로 된 자료와 사서가 필요 없는 접근만 있는 도서관 시대가 될 것인가. 이러한 주장들은 미래에 대하여 맹목적인 광신주의자들이 그려낸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컴퓨터보다는 종이로 된 인쇄물들이 먼저 나왔다. 통신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근래에 간행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과거의 자료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간행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이 현재에도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권의 문제이다. 현재 국제협약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신망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저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³⁵⁾

셋째, 비용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간행되어 나온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책의 한쪽을 스캐너로 입력하는데 50센트 내지 3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책한 권을 디지털화 하는데는 최소 100달러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소장을 통한 자료 대출의 경우와 접근을 통한 정보이용과의 경제성에 대하여 비교해 보자. 1991~92년 동안 미국의 공공도서관 대출한 건당 평균 비용이 1.87달러가 소요되었고, 대출량은 16억권 정도였다

34) "교육부 새직제 확정", 한국교육신문, 1996. 7. 3, p. 1.

35) Clifford Stoll, op. cit., pp. 248-253.

고 한다. 이것을 디지털화한 시스템에서 프린트로 출력하여 이용할 경우 1건당 10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이 정도의 대출을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면 160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 액수는 미국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기존의 대출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³⁶⁾

넷째, 전자매체는 항구적인 기록보관용이 아니다. 전자매체의 발달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매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천공카드에 의한 기록류들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로피 디스크와 CD-ROM이 50년 뒤에도 지금처럼 사용될 것인가. 지금 전자매체속에 기록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와 구조들이 몇 년을 지속하다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인가. 이런 매체들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자료들을 새로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³⁷⁾

다섯째, 현존의 도서관은 인류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에는 보존될 것이다. 또한 통신망을 통해서만 진지한 연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고력을 지닌 인류가 독서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소장중심의 도서관은 존재할 것이다.³⁸⁾

여섯째,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제공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도서관은 다기능 도서관이다. 자료대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봉사, 각종 프로그램 봉사, 지역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노인, 어린이에게 봉사하는 다기능 도서관이다.³⁹⁾

그러면, 접근에 의한 미래도서관은 언급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개개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것보다 전자매체에 의해서 접근을 통한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유익한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전자서지

36) Crawford and Gorman, op. cit., pp. 135-139.

37) Clifford Stoll, op. cit., pp. 258-261.

38) Ibid. pp. 261-265.

39) Crawford and Gorman, op. cit., p. 133.

D/B는 지역간이나 국가간에 도서관 상호대차, 협동수서, 보존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접근 도구이다. 또한 정부문서나 기술보고서등과 같은 특정화된 짧은 자료에 대한 D/B와 지도자료를 포함한 확장정보는 모든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⁴⁰⁾

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소장 중심의 도서관만으로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소장을 포기하고 접근의 형태로만 나아갈 경우에는 더 이상 도서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서라면, 강력한 실물장서의 바탕 위에 도서관 자원 공유의 차원에서 특정분야의 자료에 대해서 접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장과 접근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도서관을 예측할 것이다.

VI.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미래도서관에 대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식과 우리 나라 도서관의 장서개발 현단계, 그리고 미래도서와 도서관, 미래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 소장과 접근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미래도서관에서 소장과 접근 문제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많은 글들이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계는 미래도서관의 소장과 접근문제를 풀어나갈 우리 나름의 독립된 이론도 갖고 있지 못한 서구추수적임도 알았다.

조혜정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식민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다.⁴¹⁾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계가 미래도서관의 소장과 접근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함은 '식민지성'에 젖어 있다

40) Ibid., pp. 150-151.

41) 조혜정, *탈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씹기*, 제2권 : 각자 선자리에서. (서울 : 토하나 의 문화, 1994.) p. 16.

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근대화 이론’에 밀려 서구화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온 분위기가 문헌정보학계에도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과 접근’에 관한 문제도 우리 나라 도서관이 처해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서관을 전자화 하면 ‘접근’의 방식으로 이용자 요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야단들이다.

미래도서관의 소장과 접근의 문제는 우리 나라 도서관 현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도서관수에 있어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기존 도서관들조차도 기본장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공부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도서관이 처해있는 ‘특수성’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단계에서 접근만으로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한다.

나는 요사이 창원시에서 지극히 작은 개념의 마을도서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⁴²⁾ 1995년 7월에 개관하여 사파동성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파동성마을도서관과 1995년 8월 봉림복지관내에 개관한 봉곡마을도서관이 실험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다행히 창원시로부터 창원시에 소재한 9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권이 마을도서관 운동을 연구·실행하고 있는 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로 위탁되어졌다. 금년 5월에는 5개 복지관에 마을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팔용동 복지관에 팔용마을도서관, 반지동 복지관에 반지마을도서관, 사림동 복지관에 사림마을도서관, 중앙동 복지관에 중앙마을도서관, 대원동 복지관에 대원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제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등·하교 길의 초등학교 어린이와 시장바구니를 손에 든 장바구니

42)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23집(1995. 겨울호), pp. 211-252.

양재한,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창원전문대학논문집, 제13집(1996. 5), pp. 361-378.

주부들이 주고객이다. 각 마을도서관마다 평일 평균 30명에서 90명 정도가 순수한 자료 이용자들이다. 그야말로 아주 작은 개념의 마을도서관이 출발한 것이다.

몇 년 동안 도서관운동에 참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은 소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소박한 욕구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쇄매체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이용자들의 현재의 요구가 지극히 소박한 요구이고, 인쇄매체로 독서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다면, 이용자의 요구와 독서습관을 무시한 채 종이 없는 도서관으로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서는 소장과 접근에 대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미래도서관은 소장이 축이되고 접근이 보조적 위치에 서는 구조속에서 균형된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먼저 문헌정보학계가 정보화 현상의 지나친 저품을 제거하는 자성적인 노력이 있을 때 도서관 현장이 소장과 접근에 대한 균형감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컨데, 미래사회에 전자매체는 특수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종이가 없는 사회, 도서관에 책이 없는 사회, 사서가 정보공학자로 바뀌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Crawford와 Gorman은 다음과 같이 미래도서관에 대하여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

미래에는 인쇄물과 전자매체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미래에는 선형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가 공존할 것이다.

미래에는 사서에 의한 중개와 이용자에 의한 직접접근이 공존할 것이다.

미래에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시대일 것이다.

미래에는 건물로서 도서관과 인터페이스로서의 도서관이 공존할 것이다.⁴³⁾

43) Crawford and Gorman, op. cit., pp. 182-183.

〈참 고 문 헌〉

-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 '96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자료집, 1996. 10)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Digital Library와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향상: 1995년 과학 기술정보관리협의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1995.
- 구본영.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6. 6), pp. 3-50.
- 김성혁. "정보화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지식공학과 지식공학자의 역할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1993), pp. 69-85.
- 김순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의 현단계: 백두시 4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 김영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실진단과 대안".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 제발표논문집, 1995. pp. 31-54.
- 김정근, 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27집(1994), pp. 3-74.
- 김정근. "광복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 관장문제를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1995. pp. 87-100.
- 김정근.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23집(1995. 겨울호), pp. 285-328.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 김정현. "전자도서관의 발달과 전망".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22집(1995. 6), pp. 351-372.
- 김태승. "학문의 신실중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제34권 제5호(1993, 9. 10), p. 2.
- 박인웅, 김정근, 이연옥.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구입의 현단계". 도서관. 제50권 제3호(1995. 가을호), pp. 3-32.
- 백항기. "대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7집(1995. 10), pp. 113-126.
- 서은경.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32권 4호(1995. 6), pp. 5-16.
- 이경우. "공부방 탈피를 위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몇가지 문제". 도서관. 제48권

제5호(199 3, 9. 10), pp. 58-71.

-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전국사서협회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1995. 12.), pp. 4-14.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제49권3호(1994. 가을), pp. 63-84.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서비스 분야 연구의 성과와 과제”. 화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4), pp. 33-46.
- 이연옥.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어디까지 와 있나”. 화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5집(1995), pp. 60-76.
-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자료집(1): 공공도서관. 서울: 신문학사, 1991.
- 정동렬.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1993), pp. 23-41.
- 정영미. “문헌정보학의 핵심개념에 대한 내용분석적 연구”. 문헌정보학논총. 이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4. pp. 27-54.
- 정준민. “정보사회를 대비한 대학도서관 개념의 재정립”. 한국문헌정보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집(1995. 10), pp. 73-94.
-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제4개정판. 서울: 구미무역, 1996.
- 조윤희. “나의 공공도서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자료모음(199 4), pp. 21-33.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읽기. 제2권: 각자 선자리에서. 서울: 또한 나의 문화, 1994.
- 최석두. “미래사서의 역할”. 도서관문화. 제34권 제5호(1993, 9. 10), pp. 29-35.
-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1995), pp. 7-14.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준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3. pp. 81-111.
- 최성진. 도서관화통론. 증보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한국도서관협회.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문화”.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1996)
- 한국정보관리학회.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1995. 10.
- 한상완.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995. 10), pp. 3-72.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1994~95*. Washington,

DC : The Association, 1996.

Baker, Philip G. 안현수 역. "전자책과 미래의 도서관". 도서관. 제48권 제3호 (1993, 5. 6), pp. 14-37.

Buc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Chicago : ALA, 1992.

Stoll, Clifford. 한경훈 역. 허풍떠는 인터넷. 서울 : 세종서적, 1996.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Chicgo : ALA, 1995.

Dowlin, Kenneth E., 최석두 역. 전자도서관. 서울 : 구미무역, 1989.

Harris, Michael H. and Hannah, Stan A. *Into the future :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Norwood, N. J. : Ablex, 1994.

Problems on ownership and access in future library

Jae-Han 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ownership and access in future library. For this purpose, this is criticized about recognition regarding future libr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ers in Korea. And, this is reviewed the present stage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a role of future books, future libraries and future librarian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known unrealistic reality analysis and forecast surrounding future library discourse and at the same time that following Western model is not fit for future library in Korea. This study is proposed resolving of problems to access based on physical collection in future library.

* Associate 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Department, Chang-won Junior College.